

A ñ
é ß

STARTER STORY · KOREAN · B2

틀린 글자들

틀린 글자들

은주 씨의 직업은 교정자다. 출판사에서 십오 년째, 남의 글에서 틀린 글자를 찾아내는 일을 한다. 오타자는 그녀의 눈에만 보이는 작은 얼룩 같아서, 길거리 간판에서도, 식당 차림표에서도 어김없이 눈에 띄었다.

직업병은 어머니의 편지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시골에 홀로 사는 어머니는 철마다 편지를 보내왔다. 휴대폰 문자를 어려워하는 분이라, 소식은 늘 손 편지로 왔다. 문제는 그 편지가 틀린 글자로 가득하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했다. 열세 살부터 남의 집 밭일을 했고, 글은 어깨너머로 배웠다고 했다. 맞춤법은 어머니에게 평생 낯선 나라의 법 같은 것이었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은주 씨의 눈은 자동으로 빨간 펜을 들었다. ‘갑자기’를 ‘갑짜기’로, ‘괜찮다’를 ‘괜찬타’로 쓰신 것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고치고 있었다. 고치고 나서야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지난겨울, 어머니가 크게 앓으셨다.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는 큰 병은 아니라면서도, 연세가 있으니 자주 들여다보라고 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은주 씨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부쩍 작아 보였다.

그 무렵부터 은주 씨는 어머니의 편지를 모으기 시작했다. 서랍을 뒤져 보니 이십년 치가 나왔다. 백 통이 넘었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이 편지들을 컴퓨터로 옮기고 맞춤법을 바로잡아서,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드리면 어떨까.

교정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의 말들이 깨끗하게 정리된 책이라니. 은주 씨는 주말마다 편지를 한 통씩 옮겨 적기 시작했다. 틀린 글자를 고치고, 띄어쓰기를 바로잡고, 문장을 다듬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고치면 고칠수록, 문장은 반듯해지는데 어머니가 사라졌다. ‘갑짜기 눈이 마니 와서 니 생각이 낫다’를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네 생각이 낫다’로 바꾸고 나니, 그것은 누구의 문장도 아니었다. 어디에나 있는, 아무의 문장이었다.

은주 씨는 모니터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괜찬타, 다 괜찬타’ 라고 쓰인 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다, 다 괜찮다’ 라고 고쳐 읽자, 목소리는 사라지고 활자만 남았다.

그제야 은주 씨는 깨달았다. 어머니의 틀린 글자들은 오류가 아니라 발음이었다. 어머니는 글자를 쓰신 게 아니라, 말을 종이에 옮기신 것이었다. 글이 서툰 사람은 소리 나는 대로 쓴다. 그래서 그 편지들에는 어머니의 숨소리까지 그대로 적혀 있었다.

십오 년 동안 은주 씨는 반듯한 문장이 좋은 문장이라고 믿어 왔다. 그 믿음으로 밥을 벌었고, 그 믿음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고치고 싶었던 글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고치면 안 되는 글이었다.

은주 씨는 몇 달 동안 만든 파일을 닫았다. 지우지는 않았지만, 다시 열지도 않았다. 대신 편지 백여 통을 낱싸순으로 정리해서, 한 장 한 장 그대로 사진을 찍었다. 어머니의 글씨, 눌러쓴 자국, 귀통이의 얼룩까지 모두 담았다.

그렇게 만든 책의 제목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괜찬타, 다 괜찬타’ . 표지에는 어머니의 글씨를 그대로 옮겼다. 인쇄소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목에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은주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게 맞는 글자예요.”

봄에 어머니를 찾아가 책을 드렸다. 어머니는 책장을 넘기다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다. “부끄럽다, 애. 틀린 글자투성이인데 뭘 이런 걸 책으로 만들었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머니는 책을 무릎에서 내려놓지 않으셨다.

그날 밤 어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자신의 이십 년을 처음부터 다시 읽으셨다. 은주 씨는 그 옆에 누워, 어머니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를 들었다. 교정자의 눈은 이상하게도 그날만은 아무 얼룩도 찾아내지 못했다.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어머니의 편지는 계속 온다. 여전히 ‘갑짜기’ 눈이 오고, 여전히 모든 것이 ‘괜찬타’ . 은주 씨는 이제 그 글자들을 고치지 않고 읽는다. 세상에는 틀려서 완성되는 글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배웠다.

OQOU STARTER LIBRARY

This story is from oqou's free starter library, graded at B2 for Korean readers.

Read it interactively in the oqou app: tap any word for an instant translation, listen with natural narration, and carry your saved vocabulary into every story you read next.

oqou.app

[Download oqou on the App Store](#)

oqou •